

2001년 국내석유시장 변화와 대응



김 명 환

〈 LG-Caltex정유 업무/홍보부문장 〉

I. 들어가며

지난 해는 정유업계에 있어서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황과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것은 물론이고, 석유제품가격의 자율화 및 국내 유통시장 개방 등 최근 수 년간 시행되었던 석유산업 정책 전반에 대하여 시장참여자 뿐만 아니라 언론, 국회, NGO 등에 의한 비판과 검토, 정책방향 제시가 난무하는 과도기적 혼란기를 경험한 한 해였다.

OPEC의 감산으로 야기된 고유가에 따른 국내석유제품가격의 인상 및 이에 대한 적정성 논란에서 시작된 문제는 단순히 가격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공급과잉과 덤핑판매, 군납 및 소매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장기간 조사, 상표표시제 및 전자상거래 시장에 이르기까지 석유산업 자유화 과정에서 비롯된 국내 석유산업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표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논란들은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방향성을 상실한 채 마무리되지 않고 해를 넘기게 되었으며, 바람직한 해결책이 도출되기까지는 아직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 보인다.

올해는 정유업계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될 석유시장의 모습은 곧바로 국내 석유시장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석유산업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파급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의 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크므로 요모조모 잘 살펴서 시행착오없이 현장에 무리없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II. 본론

올해 국내 석유시장은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자리잡아가는 가운데 대내외적 여건과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각종 제도의 변화 속에서 어느 해 보다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자유화 및 석유산업 개방화가 점차적으로 뿌리내리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유사와 수입업자간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국내 정유사간에도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책당국을 비롯한 외부기관의 가격 모니터링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가격경쟁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만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과도한 가격경쟁은 기업의 수익성을 하락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간의 경쟁이 가격경쟁으로만 집중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서비스 경쟁 등 비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가격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외부 기관의 가격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시장경제 하에서 가격은 기업 주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그 적정성은 시장기구에 의해 검증 받게 되므로, 어떠한 형태든 인위적인 가격설정 및 가격유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존중되는 풍토만이 국내석유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해 언론, 국회 및 NGO 등에 의해 촉발되었던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은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에경연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가격의 적정성과 관련한 기존의 논쟁 및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에경연의 용역보고서는 국제현물시장가격(IPP)을 기준으로 국내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보고서 전체적으로 정유사의 가격책정이 원가요소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정유사가 국내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마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에경연의 용역보고서상의 가격평가모형은 변동비 수준의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국내가격을 평가함으로써 고정비 요소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산업의 특성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소비자의 시각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하여 국내시장가격이 수출가보다 높다고 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리의 전개는 매우 단순하고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가격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가격은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그 적정성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이므로 인위적인 기준의 설정 및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비상시를 대비한 국내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현황과 국제석유시장의 규모 및 수급상황등 제반 여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거쳐 현실성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셋째, 상표표시제도 및 전자상거래시장과 관련하여

유통시장 대변혁이 예상된다.

상표표시제도의 취지가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만족도의 향상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기존의 몇 개의 소규모 전자상거래시장 외에 국내 정유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 시장(Oil Chain.Com)이 본격적 출범을 위해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상기 두 가지 제도 모두 국내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감안할 때 신중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조급한 변화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석유유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상표표시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면 유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유통비용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유사 등 시장참여자의 추가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존의 주유소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off-line)시장을 기본으로 하여 전자상거래시장시장을 통해 잉여물량을 소화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두 시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전자상거래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참여자격 및 물류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거래단위를 정하고, 기존 유통업체의 반발과 물류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B2B 모델을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편의점, 자동차 정비, 택배사업 등 주유소 내 부대사업을 다양화하고, 석유산업 이외의 에너지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것은 물론 벤처산업 지원·육성을 통한 사업다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유업체는 국내 석유시장의 포화 및 수익성 하락에 따른 부대수익 확보 및 서비스경쟁의 일환으로 주유소 내에 편의점, 자동차 정비, 택배사업 등 주유소를 거점으로 한 Network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부대사업은 e-Business의 도입과 더불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사업다각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주유소업체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신규사업에 있어 경계해야 할 것은 시장실패의 대가를 너무 크게 치룬다는 점이다. 이런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시장참여의 범위와 속도는 수익성을 감안하여 내실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III. 맺음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올해 국내석유시장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참여자들은 서로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구하려 할 것이므로, 단기간 내에 공통적인 이익을 찾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다수의 국내시장 참여자들이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석유산업과 관련하여 지켜져야 할 불변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공급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석유산업의 비중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석유산업의 실패는 결국 국가경제 전체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석유수급을 위해서는, 국내석유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단기적인 이익을 목표로 선별적으로 수입·판매하는 수

입업자가 아니라 국내에 생산설비를 두고 정제·판매하는 우리 정유업체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에너지 산업을 단순히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집단으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국가 안보와 연계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석유산업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이해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100% 만족시켜줄 수는 없겠지만, 석유 정책의 근본은 '석유수급 안정'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개선되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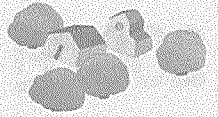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해 차등세를 지속 적용 및 차등폭 적정화, Heavy ends 등 부생연료유에 대하여 석유제품과 동일한 세금 및 부담금 적용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한 자율적인 가격책정 및 시장기구에 의한 적정성 검증,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상표표시제도 개선, 기존의 유통시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활성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머지않아 국내 정유사도 외국의 메이저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된다고 볼 때 경영활동의 여러 면에서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대사업의 활성화 및 사업영역의 다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유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유업체 스스로 지나치게 소극적인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논란이 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득함으로써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전한 경쟁의 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용어해설



• 통화스왑프

통화 스왑프란 원화와 외화, 또는 외화자금간 상이한 통화의 채권과 채무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또 특정 통화를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되사주는 것을 약속하는 매매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스왑프' (swap)란 '교환한다' '서로 바꾼다' 라는 의미다.

통화 스왑프에는 원금과 금리를 모두 거래하는 경우와, 원금을 제외하고 금리만 거래하는 금리 스왑프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둘 모두 자금 운용과 조달에 따른 가격 변동의 리스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원화 금리로 4%, 달러화 금리로 5%를 조달할 수 있는 A회사가 달러화로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 경우 A사보다 낮은 금리로 달러화를 조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원화자금 조달을 원하는 B사를 찾아 스왑프 거래를 구성한다. A사는 금리 5%의 원화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B사에 융통해 준다. B사도 4%로 조달한 달러화 자금을 A사에 공급하는 형태로 통화를 서로 교환하면 A사는 혼자 힘으로 달러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보다 금리를 1%포인트 싸게 조달하는 이득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통화 스왑프는 서로 다른 통화간의 금리차를 이용해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환율이 일정한 상황에서 고금리 통화와 저금리 통화가 있다면 기업은 저금리를 은행에 지급하는 반면 고금리를 지급받는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율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기업은 항상 원금과 금리부문의 환위험을 여전히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